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 '나는 흥어다' 안소웅 감독



“흥어 비유, 유쾌하게 바라봅시다”

일러스트레이터 안소웅씨는 지난해 10월과 올 9월 두차례 광주 금남로와 대인시장, 목포 수산시장, 대구 등을 돌며 거리에서 시민들의 캐리커처를 그렸다. 그림 대가로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흥어' 그림이 그려진 십자수. 시민 200명의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그들에게 십자수를 놓아달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5~27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리는 '2013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 '나는 흥어다' 이야기다. '나는 흥어다'는 전라도 비하 발언이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넘쳐나는 세태를 진단해 보는 다큐멘터리다.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해소 방안은 없는지를 담았다.

안소웅(30)씨가 직접 감독을 맡았고, 첫 다큐가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반 호남 정서가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서 지금 세대 어린이들조차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반호남 정서는 요즘 언어로 '흥어'로 비하되고 있지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많은 분노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보다는 다각도 측면에서 유쾌하게 바라볼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 감독은 광주의 울분만을 담아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지역감정 조장 세태 진단 다큐

시민 200명 그림 그리며 대화

25~27일 독립영화제 35편 상영



안소웅 감독

움츠러들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해소시켜 주자는 취지로 다큐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의 전라도 비하 댓글 중에 이모티콘 방식으로 그려진 흥어 그림이 있었어요. 웃기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이미지를 십자수로 표현해 봤지요. 200명이 십자수 작업에 참여했고 그 여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흥어'로 비하하는 현실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인터뷰했어요. 광주만의 자체적인 이야기가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보더라도 거리감 없도록 공통적인 감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안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나는 흥어다'를 제작하며 틈틈이 촬영한 단편영화 '침묵하라 2013'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3광주독립영화제'는 사흘동안 모두 8개 섹션으로 35편의 신작영화를 상영한다. 눈에 띄는 섹션은 '5월 이야기'. 서울대에 재학중인 최영권 감독의 '5공(共) 아세요?'와 이순화 감독의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 '왜 내가 방송을 했을까' 등 3편을 선보인다. 폐막작은 김경자 감독의 다큐 '소안의 망각과 기억'이다.

전 작품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나 궁금증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의 070-8236-189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몸짓으로 그리는 '무등산 사계'

무용총체극 '무등 1187' 내일 남구문예회관

‘무용과 미디어 아트가 만나 그려내는 무등산.’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어머니산'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춤사위로 표현한 무용총체극 '무등 1187'이 공연된다. 26일 오후 4시~7시30분 광주남구문예회관.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인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박준희 발레단이 함께 준비한 작품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각기 다른 느낌의 춤이 어우러진 무대다.

무등산의 옛 이름인 '무뎡'과 무등산의 높이(1187m)를 제목으로 삼은 작품은 '산 1187', '길을 열다', '네 개의 풍경', '주상절리', '무뎡 1187' 등 무등산을 상징하는 5개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풀어낸다.

전국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김미선씨를 비롯해 한명선·박정교·채훈화·최우석·김보민·선유라씨 등 40여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가 함께했다. 진씨는 중봉의 억새밭, 등 무등산의 신비로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 그래픽 편집을 통해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또 무대 양끝쪽에 영상이 투영되는 스크린을 설치, 입체감을 높였다. 아버지인 고(故) 진양욱 화백의 유화 작품에 2D효과를 넣어 새롭게 변신시킨 점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230-7422. /김미은기자 mekim@



‘꽃 같은 시절’ 광주무대 다시 한번

푸른연극마을 27일까지 공동예술극장

올해 광주연극제에서 우수연기상·신연연기상·무대미술상을 수상한 '꽃 같은 시절'이 다시 한번 광주 무대에서 선보인다.

푸른연극마을이 27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예술극장에서 '꽃 같은 시절'을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지난 5월 정기 공연에 이어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일부 배역들을 바꾸고 작품 전개과정을 다듬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사건의 전개순서를 따르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연극 '꽃 같은 시절'은 공선옥씨의 동명소설을 오성환씨가 각색하고 이당금씨가 연출했다. 연극은 불법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공장 때문에 고통받는 순박한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그리고 있다.

자식과도 같은 가족을 잃고,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다 못해 투쟁에 나선 할머니들은 대한민국에서 '갑'이 아닌 '을'로 살아가는 약자들의 모습을 닮아있다.

푸른연극마을은 지난 1993년 창단했으며 2003년 밀양 세계 공연예술축제 공식 참가작 선정 및 연기상을 받았으며 2010년 전국연극제에서 '사평역'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공연문의 062-511-2446, 010-6610-052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예술가들이 여는 대인예술夜시장 시장작가협, 오늘 오후 6시~밤 10시

대인예술시장에서 활동하고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예술야시장을 운영한다.

대인시장작가협의회 '다다'(회장 이기성)는 25일 오후 6시~10시 갤러리 다다 일대에서 '대인시장 예술을 입다'를 주제로 예술야시장을 개최한다. '달'(DAN·Dain Art Look) 프로젝트라는 이름

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장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예술시장을 표방했던 대인시장에서 정작 예술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에서 그동안 문화재단 등이 주도한 프로젝트 사업에서 벗어나 작가들 스스로 예술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작가들은 스튜디오를 길거리로 옮겨와 전시는 물론 공연, 퍼포먼스, 영화·뮤지비디오 촬영 등 다양한 볼거리로 이번 달 프로젝트를 꾸밀 예정이다. 여러 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 아트상품 프리마켓, 먹을거리 장터, 통기타 연주, 힙합 공연, 댄스 등도 준비돼 있다. /김경인기자 kki@

창업 31주년 **국제보험**

www.kjhr.com

디지털 보험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소파 식탁 전문점

CASATO

까사또 (가족/이태리어 상표등록)

광주점 금호월드 7층 45호 ☎062)350-8333 금남가구거리점 (유동사거리 옆) ☎062)381-3388